

다시금 사역지로……

그렇지 않아도 멀고 먼 길인데 사역지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. 출발 시간이 지연되면서 중간 기착지인 도하에 1시간 정도가 늦어졌고 목적지인 요하네스버그행으로 갈아타기 위해 숨 돌릴 여유도 없이 뛰고 뛰어서 겨우 남아공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.

남아공 공항에 도착은 하였지만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마지막 버스를 놓쳐버렸습니다. 아직도 집까지 가려면 버스를 이용하여 400여km를 더 가야 하는데 말입니다. 할 수 없이 공항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좀 쉬려 하려는데 이번엔 물이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. 프론트에 문의 하였더니 현지 물 사정이 좋지 않으니 급하면 수영장 물을 가져다 준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사역지로 돌아 왔다는 사실을 실감하였습니다.

다음 날 아침, 공항을 출발하여 집에 도착하여 계산해보니 한국을 출발한지 꼭 47시간만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. 잠시 집을 돌아보는데 축제 후 관객들이 빠져나간 것 같은 어수선한 모습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. 널브러진 개구리와 바퀴벌레들의 사체들, 도마뱀들의 배설물, 수북이 쌓인 먼지,,,,,,ㅠ 하지만 사역지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정리를 마치고 이젠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

● 단비의 결혼식(9월 25일)



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. 갑작스런 결정이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지라 모든 분들을 초청하지 못하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.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.

● 산 소망 축제 Living Hope Ministry Conference(10월 8일-10일)



Living Hope Ministry의 리더였던 시비야Shibiya목사님이 지난 4월 소천 하신 후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. 하지만 새로운 리더로 시밤부 목사님을Sibambu 선출하고 이번엔 코마티포트 Komatipoort 산 소망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. 코로나19으로 인해 모임 자체가 쉽지 않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였습니다.

● 헌팅톤 소명교회Huntington Calling Church 예배당 기공 예배(10월 17일)



지난 6월, 태풍으로 한쪽 벽이 허물어져 임시로 막아 놓은 상태이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로 인하여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. 이러한 곳에 정음 소명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난 10월 17일 기공 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

이 곳은 한낮의 기온이 42-3도를 넘나들어 공사가 쉽지 않습니다. 무더위속에서도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쳐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
● 우편물 도착을 위해

예광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후원 된 마스크 15,000장이 지난 6월 15일 이천 우체국을 출발하여 6월 23일 배에 선적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. 항구 도시인 더반에서 지난 7월 폭동 때 모든 수,출입 인프라가 파괴되고 해킹 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물류의 통관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있어 걱정입니다.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속히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.

코로나 19가 주춤 한 듯 보이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활보하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불안하기 만합니다.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두려워 하지 않고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사 올립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

2021년 10월 희망의 땅 남부 아프리카에서

김창길/박성자 선교사 드림